

# 광주 문화예술기관들, 지역 문화의 미래를 논하다

## 광주문화기관협의회 11주년 기념

### 15개 기관 대표자회의·세미나 진행 협력사업 제안·규약개정 경과보고 11년 성과·향후 추진과제 논의 등

광주지역 문화예술기관들이 내년도 협력사업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0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광주문화기관협의회 11주년을 기념해 지난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재)광주비엔날레 등 관내 15개 문화예술기관 참여한 가운데 '함께한 11년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제24회 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지난 2013년 문화예술진흥·문화산업 발전 도모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대시민 문화활동 확산을 골자로 한 상호 협력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광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협치 사업으로 현재 의장기관 역할은 광주문화재단이 맡고 있다.

제24회 광주문화기관협의회 대표자회의는 규약개정, 신규회원 가입 기관에 대

한 경과보고와 2025년 기관별 협력사업 제안 논의의 안건으로 진행됐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의 신규회원 가입이 승인됐고 2025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기념 연계사업, 굿즈상품 유통협조, 시립예술단 참여공연 협력, 통합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회의 이후 진행된 광주문화기관협의회 11주년 기념 세미나는 1부 인공지능·문화예술 공존, 2부 광주문화기관협의회 11년 성과공유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문화예술의 공존을 주제로 주제강의, 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주제강의는 김경수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미디어콘텐츠·컬처테크전공 교수가 맡았고, 문화기관 AI연계사업 사례 공유는 홍건영 광주디자인진흥원 실장과 백창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장이 맡아 각각 '디자인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AI', 'AI와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도약' 등의 사업을 공유했다.

2부는 광주문화기관협의회 1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박경동 광주문화재단 기획협력팀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원환미



광주문화기관협의회 11주년 기념 세미나가 지난 15일 광주문화재단 사옥에서 진행된 가운데 성료했다.

부산문화재단 선임연구원이 '부산 문화정책 거버넌스 도전연대기'를 주제로 타지역 협력 사례공유를 진행했다. 타기관 협력 사례공유는 김욱 광주관광공사 MICE 운영팀장이 'G-페스타 광주'에 대해 얘기했고, 최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어린이문화원운영팀장이 '광주유아문화예술 교육 유관기관협의회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 세미나에서는 광주문화기관협의회 11년 주요 성과로 △정책개발 및 제안을 위한 정치권 간담회 △공약사업 발굴 포럼 △대정부 문화정책 과제 제안 등이 언급됐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문화관련 소책자를 제작 및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협의회에서 발간한 책자는 3종으로 광주문화기관 디렉토리북(2019), 광주문화공간매거진 '걷는광주(2020)', '광주에서 문화를 한다는 것(2021)' 등이 있다.

이밖에 광주문화기관협의회 향후 과제로는 △직원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캠페인 △협의회 통해 대정부 정책 제안 등이 도출됐다.

협의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과제를 토대로 회원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15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다. 의장기관으로서 11년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대·협력·상생·연결·공동·가치·확장 등을 목표로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지난 2013년도에 7개 기관으로 출범해 현재 15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다. 현재 지역 관내 문화예술기관이 회원기관으로 소속돼 매년 상·하반기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는 등 기관과의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 인생음악극 '나의 옛날 이야기 BY 엄마의 인생'

### 26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서 양금덕 할머니 자서전 바탕 공연

라르브르 앙상블의 인생음악극 '나의 옛날 이야기 BY 엄마의 인생'이 오는 26일 낮 12시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다. 역사적 아픔과 개인의 기억을 음악과 예술로 풀어낸 이번 공연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깊은 공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작품은 지난 9월 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호평받았던 '엄마의 인생-고맙습니다'의 재공연으로 일제 강점기 전남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 중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주곡으로는 목포의 눈물, 선들러 리스트, 찔레꽃, 사랑의 인사, 나의 옛날 이야기 등 시대의 정서를 담은 곡들로 구성돼 있고, 음악과 영상, 시, 나레이션 등 요소가 결합돼 관객들에게 감동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라르브르 앙상블은 지난 2011년 창단된 광주·전남 지역의 전문 음악인들로 구



성된 단체로 이름은 프랑스어로 '나무 연주단'을 뜻한다. 매년 정기 연주회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다양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거리연주를 선보이며 역사적 메시지를 알리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예술과 역사, 그리고 감동이 함께하는 이 특별한 무대는 세대를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김수연 음악감독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아픔 속에서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공연을 기획했다"며 "음악과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으로 관객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찬기자

## "사라진 광주읍성으로 떠나보자"

### '책 끼고 아웃사이드' 읍성투어 내일까지 수강생 선착순 모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세 번의 지역문화 교류마당을 개최한다.

20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 따르면 15회째를 맞는 지역문화 교류마당 '책 끼고 아웃사이드'는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사라졌던 광주읍성의 모습을 찾아 떠나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발간한 '광주 읍성 이야기' 단행본이 시민의 큰 호응을 얻어 기획됐다. 해당 내용을 주제로 지난 달 강좌를 열어 책과 강의로만 접했던 사라진 광주읍성의 모습을 실존하는 읍성을 통해 그려보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1차 프로그램은 23일 사천과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 성곽, 2차는 30일 고창과 완주를 포함한 전북 지역 성곽에서 투어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3차는 다음 달 6일 이경산 남도역사연구원 연구실장이 해설을 맡아 광주읍성을 둘러볼 예정이다.



지난해 9월16일 열린 제14회 '지역문화 교류마당'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공

참가자 모집 인원은 선착순 40명으로 희망자는 22일까지 홈페이지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관계자는 "광주 정신의 근간이자 의병의 성지였던 광주읍성을 시민들의 품에 다시 안기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의 광주읍성 구현을 실행하기 위해 시민과 행

정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광주읍성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발굴·수집·연구를 통해 사라진 광주읍성을 '사이버 광주읍성'(http://gjeupseong.org)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바 있다.

투어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062-234-2727)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기자

## 광주 서구문화원, '나의洞시대 광주오페라'展 개최

### 광주비엔날레 작품 주제 공모전 수상작 74점 전시

광주 서구문화원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나의洞시대 광주오페라'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개최한다.

20일 서구문화원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광주비엔날레 작품과 주제를 반영해 다양한 예술 분야로 표현한 수상작 74점의 작품들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박찬기자

전시 개막식은 22일에 열리며, 이와 함께 시상식도 진행된다. 대상에 광주시교육감상 1명, 최우수상에는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장상 2명, 특선 33명, 입선 38명에게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정인서 광주 서구문화원 원장은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학생들의 독창적인 해석과 개성이 담긴 이번 전시에서 새로운 시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예술적 표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강 '소년이 온다' 주제로 오월문학·인문학적 도시 재생 토론

### '제3회 7인 7색 7분 스피치' 개최 28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오는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광주 인문학적 도시재생'을 주제로 광주 지역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제3회 7인 7색 7분 스피치'를 개최한다.

2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광주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관내 전문가 7명이 각자의 시각으로 광주의 인문학적 도시재생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약 7분 동안 자유롭게 발표할 예정이다.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의 기조발표(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활용한 인문학적 도시재생)를 시작으로 전교필 영암문화재단 대표이사, 정명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장, 백형주 도시문화공작소 인유 대표,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호균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장, 이한호 ㈜쥬스컴퍼니 대표가 참여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류 포럼 회장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광주는 어디에서든 오월 관련 문학적 유산을 느낄 수 있는 문학유산의 도시이며, 이번 행사로 물리적인 도시재생만이 아닌 정신적 도시재생으로도 광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찬기자